

나이지리아, 내전 지속으로 인해 석유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 빚어

-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(NNPG)의 Ndu Ughamadu 대변인은 나이지리아 남부의 석유수출항인 Warri港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5일(현지시각, 이하 동일) 폭발하였으며, 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7일 오전까지 진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.
- o 동 파이프라인은 미국 Chevron-Texaco社의 Escravos 석유수출 터미널로부터 Warri港 및 북부로 4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Kaduna 등 2곳의 정유시설까지 원유를 수송해 왔음.
-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나선 반군단체는 아직 없으나, 그동안 나이지리아의 석유생산지인 니제르 강 삼각주에 진출한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생산시설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해 온 Ijaw 부족 반군의 소행으로 간주되고 있음.

□ 석유개발 이익의 분배에 관한 부족간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

- 니제르 강 삼각주 유전지대는 세계 제5위의 원유생산국인 나이지리아의 1일 원유 생산량(현재 약 200만 배럴)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, 최근 수년 간 유전개발 이익 분배를 둘러싸고 이 지역 부족간에 갈등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고 있음.
- 인구 약 800만 명으로 니제르 강 삼각주 지역의 최대 부족인 Ijaw 부족은 일부 부족들을 선동하여, 연방정부와 석유기업들에 대해 석유 생산에 따른 이익의 보다 많은 부분을 이 지역에 배당하라는 요구를 주도하고 있음.

- o 또한 Ijaw 부족은 오바산조(Olusegun Obasanjo) 대통령이 자신들의 요구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웃한 Itsekiri 부족과 결탁하여,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설정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음.
- 3월 초 Itsekiri 부족과 Ijaw 부족간에 분쟁이 벌어지자 양측의 무장민병대 세력이 서로의 마을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했고,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군과 Ijaw 부족 무장반군간에 3월 12일 Okorenkoko 지방에서 전투가 벌어져 내전으로 확대되었음.
- 내전이 격화되면서 Ijaw 부족 반군이 니제르 강 삼각주에 소재한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생산시설을 공격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, 3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프랑스 TotalFinaElf사, 미국 Chevron-Texaco 및 영국 Royal Dutch Shell社가 차례로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면 철수시켜 나이지리아의 1일 석유수출물량 200만 배럴의 40%에 달하는 82만 배럴의 원유생산 감소가 발생하였음.

□ 석유기업들의 생산 재개 시도 위협받아

- 지난 주 Ijaw 부족 반군이 일단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니제르 강 삼각주 지대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, 석유기업들이 생산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음.
- 지난 3일 Chevron-Texaco社는 하루 생산량을 기존의 44만 배럴의 70.4%에 해당하는 31만 배럴 수준으로 하여 원유생산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4일에는 직원들을 Escravos의 석유수출 터미널로부터 전면 철수시킨 지 12일 만에 직원들을 동 터미널에 재배치했음.
- Royal/Dutch Shell社도 1개소의 파이프라인 시설에 직원들을 복귀시켜 1일 생산량을 기존의 32만 배럴의 5.6%에 불과한 1.8만 배럴 수준으로나마 생산을 재개하였으며, 금주 내로 다른 4개소에도 직원들을 복귀시켜 10만 배럴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었음.

- 그러나 Ijaw 부족 반군은 연방정부가 선거구 재획정, 석유생산수익의 분배 등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전에 석유기업들이 생산을 재개할 경우 이들 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이달 중순의 대통령 선거(12일) 및 총선거(19일)를 방해할 것이라고 위협하여, 석유생산의 설부른 재개가 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음.
- o Ijaw 부족 내 최대 조직인 Ijaw청년회의(Ijaw Youth Council)는 지난 2일, 니제르 강 삼각주의 다국적 석유기업들에게 석유생산을 재개하기 전에 Ijaw 부족 마을들에 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한다는 양해각서의 체결을 요구하였음.
- 이 같은 위협이 결국 실행에 옮겨져 파이프라인 폭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, 이에 앞서 3일 Ijaw 부족과 Itsekiri 부족간의 전투가 재개된 것으로 보도되었음. 두 부족간의 전투는 7일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따라서 생산 재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임.
- Ijaw 부족과 Itsekiri 부족의 지도자들은 7일 수도 Abuja에서 오바산조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내전 종식을 위한 방안에 관해 토의하였음. 오바산조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부족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할 계획이나, 현재의 긴장상황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.

전문연구원 오경일 (☎3779-6646)
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